

482-110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1 (전화) 070-7797-2583 (문의) [news.pcis@daum.net](mailto:news.pcis@daum.net)  
대표 손영준 <http://cafe.daum.net/pcis>

수신	각 언론사 정보화 담당기자
발신	정보화사회실천연합
문의	손영준 T. 010-8677-9515
작성일	2014. 06. 26(목)
제목	[보도자료] NIPA SW과제관리 책임의식 상실(총 3페이지)

##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SW과제관리 책임의식 상실

### 미래부의 공개SW 관리부제, 그 단면

-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과제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의 절차적 행위에 문제가 없고 전문가들에 의하여 평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무책임한 사업관리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의문이 안들 수 없습니다.
- 금번 사례를 계기로 다음의 5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.
  - 현행 서류심사, 심의,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지향적인 과제관리가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.
  - 평가는 산출물 보다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여 평가하며,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도 부족하다. 따라서 소수의 평가위원으로 전문적인 평가에 실효성이 없다.
  - 심지어 타 평가 사례에선 일부 평가위원(과제와 연관성 없는 전문가)이 용돈 벌이 삼아 평가에 참여한다.
  - 절차위주의 제도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복지 부동하게 만든다.
  - 편의주의적 절차제도는 SW인력 및 SW산업의 생태계를 살릴 도 없으며, 살려지지도 않는다.
- 또한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'2014 공개SW 개발자' 참가자 모집' 내용을 보면 20명 내외의 우수한 공개 소프트웨어(SW) 개발자를 선정해 개발 장비, 상주 개발 공간, 월 최대 280만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바위도 깬다

원의 연구장려금, 해외 콘퍼런스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은 정형적인 관리위주의 탁상행정에 의한 전시행정의 표상입니다.

4. 미래부는 SW 정책에 대하여 백지에서 그 청사진을 다시 그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SW 생태계는 고사되고 말 것이며, 창조경제 또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.
5. 따라서 다음의 SW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합니다.
  - A. 편의주의적인 소수전문가의 의사에 의한 선택적 지원에서 벗어나 오픈 공간을 통하여 열린 기회를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
  - B. 문서에 의한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소스코드(source code)를 바탕으로 한 익명의 다수에 의한 공개 평가체계 수립
  - C. 기존 기업 및 스펙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SW엔지니어(사람)를 위한 정책 수립.
  - D. 각 산하기관에 흩어져있는 SW관련 업무기능을 독립적인 SW전문기관의 신설
6. 미래부의 '2013년도 공개SW개발지원사업' 중 "빅데이터 활용을 활용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" 프로젝트의 일부 결과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제기 및 공개 검증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.
  - A. 통계알고리즘 중 아파치 하둡(hadoop)기반에서 분산(variance)을 구하는 1개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"MapReduce 개념에 부합하는지, Mahout과 차별성은 무엇인지, 객체지향 개념에 부합하는지"의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.
7. 위 문제의 대상이 극히 작은 범위이지만 이번 사례를 통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은 과제의 선정 및 결과의 평가(전문가 Pool의 활용한 심의회)에 있어서 해당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과제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, 공개검증을 요청하여 재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.

- 끝 -

참고자료 : 미래부의 회신 내용

2013년 공개SW개발지원사업 중 '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' 과제 개발 과정에서 분산(variance) 계산을 단일 처리 방식과 분산(distribution) 처리 방식 코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, 민원인이 해당 과제의 공개된 소스를 수집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물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에 위 사례와 함께 민원인이 제언해 주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'14년 공개SW개발지원 사업에서는 공개SW의 취지에 맞도록 과제 초기에서부터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하며, 타 공개SW 프로젝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